

자기소개서

(서식 3)

소 속		직 위		성 명	◇◇◇
-----	--	-----	--	-----	-----

만경강 하류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만경강이 일부가 없어졌지만 ○○초등학교 시절에는 강이 보이는 조그만 산에 올라가서 만경강을 보면서 친구들과 그림을 그리고 놀았던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마을은 간척지를 논으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봄이면 녹색이 찬연한 파릇한 보리와 가을이면 익어가는 누런 벼가 학교 가는 길 양쪽에 펼쳐진 모습은 지금 생각해 봐도 평화롭고 푸근한 광경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생활을 잘하던 중 복잡한 집안 형제들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가 남들보다 늦게 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은 진학하지 않고 부모님을 돌보면서 집안일을 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당시 저에게는 왜 그리 큰 문제로 다가왔는지, 우울감과 방황과 분노에 휩싸여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험이 아쉬움뿐입니다. 부모님과 농사짓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다시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공부를 시작 했지만 열심히 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그간 집안일로 인한 서러움과 방황했던 일들은 뒤로 하고 그동안 못 한 공부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 ○○장학재단 4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4년 동안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하게 되었고 교직도 이수하여 교사자격증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못 했던 공부를 대학에서 마음껏 했습니다. 학창 시절의 방황했던 경험으로 인해서 2학년 때 야학교사를 시작했습니다. 낮에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생활은 오히려 저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줬고 빛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녔던 어느 학교보다 야학은 저에게 따듯하고 행복한 학교 그 자체였습니다. 이후 이 같은 경험은 교직 생활과 학생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문제 대부분이 자신으로 인한 것보다는 가정과 부모님에 의한 것이어서 더욱 힘들어하는 모습에 안타까웠지만 함께 이야기하고 들어주는 것으로 학생들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낀 경험들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3월 1일 ○○고등학교 교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방황했기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그런 일에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을 지도했고 그것이 저의 교직 생활의 목표였습니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상처받고 그 상처를 치유할 곳도 사람도 없이 상처를 안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렵게 자신의 이야기를 선생님께 함으로써 조금의 위로와 마음의 편안함을 얻고 동시에 마음에 갖고 있던 분노 및 우울감 등이 진정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한 학생을 가르치면서 영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져 동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고 대학원을 마친 후에 박사과정에도 입학하며 계속해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꾸준히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교직 목표는 영어라는 과목을 매개로 하여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들과 호흡하는 일이 좋아서 계속 학년 부장을 맡아서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교무, 연구부장보다는 학년 부장이 더 좋았고 그 이유는 가까이에서 학생들과 교수-학습활동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면서 느낀 것은 교사와 학생들이 교과라는 매개를 통해서 만나고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에 교과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면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교직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연구 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교과 연구를 하다 보니 자연히 외부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교과서를 검정 검토하는 위원으로 활동하고 그 후에, 교육부에서 교과서 검토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수학능력시험 외국어 검토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참여하게 되었고, 그 경험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저에게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이후에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3년 동안 강의를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기간제 교원 인력풀을 구성하기 위한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일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EBS와 EBS plus에서 교재 검토 및 출제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초창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진학지원단으로 활동하면서 각급 학교에 순회하면서 진학에 대해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2008부터 2013까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일명 NEAT 개발에 따른 쓰기 부분에 참여하여 활동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NEAT 쓰기 완성』이란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쓰기와 말하기 평가가

읽기 듣기만큼 영어교육에서 중요할 것이라 예상하고 일선 학교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외국 문학작품을 읽을 때 번역본으로 작품을 접하게 됩니다. 물론 번역본도 작품 감상에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문에 미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원서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노인과 바다: 노인이 소년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란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가와 배경 그리고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내해 주면 학생들이 작품을 감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집필했습니다.

저는 작품을 통해서 “노인과 젊은 어부들”의 삶을 대비하여 설명함으로써 노인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는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한 저의 책 일부 중 “젊은 어부들은 자기 기술이나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배에 모터를 달아서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조건 잡아들일 뿐만 아니라 젊은 어부들은 자연과 사람이 하나이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노인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 서로 동류의식을 갖고서 살아가는 것이 소년과 소년이 속한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했다. 노인은 소년이 설령 삶이 잠깐 아니면 영원히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노인이 제시한 길을 걸어갈 희망했다.”는 구절은 아이들과 이 부분에 토론하고 싶은 마음에서 고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다”는 말들을 공공연히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학생들이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국가, 지역사회, 학교가 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는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행동과 말에 더욱 관심을 두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방치가 아닌 관심을 가지고 멀리서 지켜봐 주면서 아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다가가서 함께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공부는 삶에 바탕이 되어야 하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아이들이 겪고 있는 분노, 외로움, 걱정 등에 대한 공감입니다.

저의, 이 같은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고산고등학교의 학생들 및 교사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의 경험들이 자랑거리가 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은 합니다. 적어도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고 “힘들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경험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효율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확인하는 자만 같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 교장을 하려 하는가?”라는 질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조그마한 힘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페스탈로치가 말한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학교는 교사의 모범과 사랑이 있는 학교입니다. 사랑이 없는 모범은 딱딱하고 모범이 없는 사랑은 너무 정에 이끌리는 분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모범과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힘들고 지친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비현실적인 꿈이라 말하겠지만 그래도 꿈을 꾸고 실천해야 현실로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신성적과 입시로 인해 학교는 친구들 간에 협력보다는 경쟁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 친구들 및 자연과 소통하면서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흥미, 관심을 찾으며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